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2

"우리도 함께 뛴다"

젊은 잎새 사랑 봉사단 '젊음의 질주'

■ 보해양조

"2011년 지역소주시장 점유율 85% 달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보해양조 임직원들의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사표다.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는 보해양조는 지난 1월 목표달성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3·1절 마라톤 출전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소주시장 점유율 85% 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진다는 각오다.

소주시장 점유율 85% 달성

올해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보해는 지난 1981년 보해덕천장학회 설립 이후 1982년부터 현재까지 3424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32억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광주지방검찰청과 법무부범죄예방 광주지역협의회가 주최하는 덕천청소년대상도 지난 1984년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특히 보해는 나눔과 베풂을 위해 지난 2006년 '젊은잎새사랑나누미 봉사단'을 설립해 현재까지 345회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보해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연중 6개월 단위로 월 1~3회씩 광주와 전남·북, 서울지역에서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홍보실, 광주지점, 구매과, 기획조정실, 장성공장, 영업관리팀, 고객상담실, 보해B&F 등 보해양조 각 부서의 다양한 멤버들이 참가해 완주를 노린다.

윤행식 보해 제1영업본부장은 "마라톤을 통해 직원들의 인화와 단결심을 배양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역 소주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다짐의 장으로 삼겠다"고 출전 각오를 밝혔다.

독거노인 등에 나눔 베풂

보해 참가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오규슬(53) 구매부장은 아침건강달리기로 다져온 체력을 이번에 선보인다는 생각이다. 오 부장은 "직원들이 건강하게 화합을 다지며 골인지점에 함께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작은 바람을 내비쳤다.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에 참가하는 보해양조 임직원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하프코스에 도전하는 이효수(43) 목포지점 차장은 '보해 마라톤맨'으로 입상을 노리고 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의 완주 경험을 살려 반드시 입상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옥순(여· 48) 장성공장 대리는 "3·1절 마라톤을 통해 다이어트와 건강을 챙기게 됐다"며 "이제는 한 해를 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올해 4번째 참석하는 김재헌(40) 광주공장 대리는 매년 아들과 함께 참석해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올해는 당일 컨디션에 따라 대회 입상까지 노리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야구 꿈나무들의 전국대회 4강 레이스

■ 서구청 포비스 리틀야구단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달려서 올해 출전하는 전국대회 4강에 반드시 오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46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지역 리틀야구팀인 광주서구청포비스리틀야구단(이하 서구청포비스, 단장 손영생·감독 오동찬) 선수와 가족들이 올시즌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운동못지않게 인성교육 강조

지난해 출범한 서구청포비스는 광주지역 4개 리틀야구팀 중 광산구에 이어 두번째로 창단된 팀. 비록 학교팀 선수들은 아니지만 야구가 좋아 주말에 모여 치고 달리면서 전문선수들 못지않은 기량을 키워가고 있는 야구 꿈나무들이다.

지난해 첫 출전한 전국대회 첫경기에 전년도 우승팀 미국대표를 만나 예선탈락의 아픔을 안고 집으로 향했던 서구청포비스는 올해 3개 전국대회에 참가해 상위권 진입이라는 당찬 목표를 세웠다. 특히 오는 8월 전국 리틀야구팀이 모두 참가하는 스포츠토토대회에서 반드시 4강에 올라 지난해 초반탈락의 설움을 설욕하겠다는 기세다. 이를위해 이들은 겨울방학 동안 일주일에 4일간 하루 3시간씩의 고된 훈련도 한마디 불평 없이 참고 이겨왔다.

서구청포비스팀에는 학교팀의 엘리트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구창혁은 강한 어깨로 마운드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팀원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뛰어나다.

팀의 공격력은 김형선이 이끌고 있다. 168cm로 키가 큰데다 파워까지 갖추고 있어 4번 타자를 맡고 있다. 유격수 이영준은 운동감각이 뛰어나 공수에서 최고의 활약으로 학교 선수들 못지않은 기량을 펼치고 있다.

2루수로 활약하면서 마운드도 지키는 기영민은 볼 컨트롤이 좋고 수비력도 좋은데다 타격감도 뛰어나 '전천후 선수'로 꼽히고 있다. 또한 1루수와 투수를 겸하고 있는 김동은도 볼 스피드가 좋아 올시즌에 최고의 실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빠들도 사회인 클럽 등록

이은상이 포수로 안방을 지키며 박효근(좌익수)·김주영(우익수)·안상준(우익수)·배민웅(좌익수) 이 빼어난 주력으로 철벽같은 외야수비를 담당하고 있다.

광주서구청포비스리틀야구단이 3·1절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전국대회 4강을 목표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구청포비스는 운동 못지않게 인성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광주일고 야구선수 출신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오동찬(36) 감독은 "무엇보다도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을 가꾸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한다.

서구청포비스의 또 다른 특징은 자녀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던 아버지들도 결국 팀을 구성, '포비스패밀리'라는 사회인 야구단으로 등록하게 된 것이다.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아버지팀은 이제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필드를 누비고 있다.

이들 선수들과 아버지들은 이번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에서도 팀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힘찬 질주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원 선임기자 swseo@kwangju.co.kr

지동원·손흥민·남태희 등 '젊은피'

중복 차출 방지 A대표 우선 발탁

축구협 선수활용 원칙 정해

〈지동원〉 〈손흥민〉 〈남태희〉

"A대표팀과 올림픽(U-23) 대표팀, 청소년(U-20) 대표팀 일정이 겹치면 A대표팀 차출을 우선으로 한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올해 예정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과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2012년 런던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앞두고 대표선수 활용 방안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축구협회는 16일 오전 파주트레이닝센터(NFC)에서 조광래(57) A대표팀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제1차 기술위원회를 열고 '각급 대표팀에 공통으로 속한 선수는 A대표팀에 먼저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올해에는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9월2일, 9월6일, 10월11일, 11월11일, 11월11일, 11월15일)과 런던 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6월19일, 6월23일, 9월21일, 11월23일, 11월27일)을 비롯해 FIFA U-20 월드컵(7월29일~8월20일·콜롬비아)이 치러지고, 그 중간에 A대표팀의 평가전(6월4일, 6월7일, 8월10일, 10월7일)도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조광래호'에서 뛰는 선수 가운데 지동원(20·전남)과 손흥민(19·함부르크), 남태희(20·발랑시엔)는 U-20 대표팀은 물론 올림픽 대표팀과 A대표팀에 모두 포함돼 자칫 모든 대회에 참가시키면 선수 혹사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또 조광래호의 핵심 선수인 이청용(23·볼턴)과 기성용(22·셀틱), 윤빛가람(21·경남), 구자철(22·볼프스부르크), 홍정호(22·제주), 김보경(22·오사카) 등도 올림픽 대표팀에 뛸 수 있는 나이다.

게다가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과 런던 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 일정이 일부 겹치는 터라 축구협회로선 선수 차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대해 조영증 축구협회 기술교육국장은 "여러 대회에 나설 수 있는 선수 가운데 A대표팀에 필요한 선수는 A대표팀에 먼저 배정하는 게 옳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조광래 감독이 조만간 A대표팀에만 전념할 선수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어 "가장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선수가 지동원이다. 지동원은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공격수다"며 "가장 합리적으로 선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림픽 예선과 U-20 월드컵은 해외파 선수를 불러들일 근거가 없다"며 "올림픽 예선은 병역 혜택을 당근으로 해서 소속팀을 설득할 수 있지만 U-20 월드컵은 그런 장치가 없어서 해외파 차출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부상 박지성 한달 공백 맨유엔 큰 타격"

퍼거슨 감독 "매우 불운한 일"

셀틱도 차두리 1개월 결장 밝혀

축구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뛰는 수비수 차두리(31·셀틱)가 부상으로 1개월 정도 뛸 수 없다고 소속팀 인터넷 홈페이지가 16일 전했다.

맨유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날 "박지성은 햄스트링(허벅지 뒤쪽 근육) 부상으로 4주간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11일 팀 훈련 도중 햄스트링을 다친 것으로 알려진 박지성의 부상 소식에 대해 맨유 구단은 "시즌 초반 안토니오 발렌시아의 부상 이후 팀의 주축 선수로 활약해 온 박지성이었기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의 합류를 무척 고대하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이 다쳤다는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며 "훈련 막바지에 나온 부상이라 매우 불운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 달간 아시안컵에 출전하느라 팀을 떠나 있던 박지성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다"며 "한 달 결장은 우리에게 큰 타격"이라고 아쉬워했다.

박지성은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전, 시즌 개인 최다 골 기록인 6골에 4도움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다. 이후 지난해 12월27일 선덜랜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풀타임 출전한 뒤 아시안컵 국가대표로 차출됐다.

그러나 이번 부상으로 20일 새벽에 벌어지는 크롤리 타운과의 FA컵 16강전, 24일 마르세유(프랑스)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등 다음달 20일 볼턴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까지, 7경기 정도 결장하게 될 전망이다.

차두리의 소속팀인 셀틱도 홈페이지에 차두리 부상 소식을 전하면서 "최대 1개월간 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목을 다친 차두리는 애초 수술을 하게 되면 이번 시즌 출전이 어렵고, 수술 없이 재활치료를 받더라도 2개월 가까이 결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셀틱 구단은 "차두리가 길어야 1개월 정도 결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다행스럽다"고 안도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전남 문지희 바이애슬론 2관왕

전국동계체전…이인복 스프린트 10㎞ 金

한국 바이애슬론의 '원투펀치' 문지희(23·진도군청·사진)와 이인복(27·보성군청)이 나란히 전남에 금메달을 안겼다.

동계체전 첫날 바이애슬론 개인 15㎞서 우승한 문지희는 개막 이틀째인 1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여자 일반부 스프린트 7.5㎞ 경기에서 24분18초08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 종목 국내 최강자인 문지희는 2등 박지애(전북)를 1분09초 차이로 멀찌감치 따돌리며 우승했다. 현재까지 전남선수단의 유일한 2관왕.

바이애슬론 남자 일반부 스프린트 10㎞ 나선 이인복은 전날 20㎞ 개인경기에서 동메달에 그친 아쉬움을 설욕하듯, 이날 경기에서 29분35초0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등 한경희(강원)와 56초 차이였다. 2라운드 사격까지 다른 선수들과 비슷한 기록이었던 이인복은 속사실력을 십분 발휘, 사격에서 다른 선수보다 한발 앞섰다.

이로써 대회 이틀째 전남선수단은 금 3, 동 1의 성적표를 받았다. 문지희와 이인복은 17일에도 메달에 도전한다.

문지희는 17일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 일반부 프리 10㎞·복합 경기에 송은영(동신대), 조인희(보성군청)와 함께 출전, 은메달을 노린다. 이인복 역시 바이애슬론 남자 일반부 계주 22.5㎞에 손성락·이승일(동신대), 윤지활·송정호·조중근(전남연맹)과 함께 은메달에 도전한다.

광주시 선수단은 피겨 스케이트의 양현수(충장중 2)의 금메달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메달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한편, 한국 크로스컨트리의 간판 이채원(30·하이원·강원)은 개인통산 46번째 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채원은 16일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일반부 클래식 5㎞에 강원 대표로 출전해 15분40초9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는 1994년 체전 중등부에 출전하기 시작해 무려 18년 동안 쌓은 금자탑으로, 17일 프리스타일 10㎞와 복합에서도 우승이 유력하기 때문에 최다 금메달 기록은 48개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저우 스타' 박태환·정다래 최우수선수

대한수영연맹 2010 수상자 선정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수영의 위상을 드높인 박태환(단국대)과 정다래(전남수영연맹)가 대한수영연맹의 2010년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대한수영연맹은 박태환과 정다래를 2010년 남·녀 최우수선수로 선정해 18일 오후 4시30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열릴 2011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및 시상식에서 시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태환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100m, 200m, 400m에서 우승해 대회 2회 연속 3관왕에 오르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고, 정다래는 여자 평영 200m에서 한국 선수단에 '깜짝' 금메달을 안겼다. 종목별 우수선수상은 경영의 최규웅(한국체대), 다이빙의 박지호(한국체대)와 손성철(부산시중구청), 수구의 이명우(경기도체육회),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의 박현선(연세대)-현하(경희대) 자매에게 돌아간다.

한편,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장을 맡았던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은 18일 오전 용인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릴 용인대 학위수여식에서 명예 체육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연합뉴스